

2023년 2월 19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Service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37 Behold, I will gather them from all the countries to which I drove them in my anger and my wrath and in great indignation.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place, and I will make them dwell in safety. 38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39 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way, that they may fear me forever, for their own good and the good of their children after them. 40 I will make with them an everlasting covenant, that I will not turn away from doing good to them. And I will put the fear of me in their hearts, that they may not turn from me. 41 I will rejoice in doing them good, and I will plant them in this land in faithfulness,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예레미야 Jeremiah 32:37-41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의 빛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간구합니다. 주여,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움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차 선교여행 출발

Departure: The Second Mission Journey
사도행전 Acts 15:36-41

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So when they were sent off, they went down to Antioch, and having gathered the congregation together, they delivered the letter.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And when they had read it, they rejoiced because of its encouragement.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And Judas and Silas, who were themselves prophet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others with many words.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And after they had spent some time, they were sent off in peace by the brothers to those who had sent them.

34. (없음)

(어떤 사본들: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Some manuscripts: But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

35. 바울과 바나바는(어떤 사본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with many others also.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And after some days, Paul said to Barnabas, “Let us return and visit the brothers in every

city where we proclaimed the word of the Lord, and see how they are.”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Now Barnabas wanted to take with them John called Mark.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But Paul thought best not to take with them one who had withdrawn from them in Pamphylia and had not gone with them to the work.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And there arose a sharp disagreement, so that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Barnabas took Mark with him and sailed away to Cyprus.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But Paul chose Silas and departed, having been commanded by the brothers to the grace of the Lord.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And he went through Syria and Cilicia, strengthening the churches.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계는 아직도 고난 중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43,8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교대명령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공의회가 끝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공의회가 작성한 편지를 나누고, 유다와 실라의 권면도 들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 위로의 말로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2차 선교여행을 제의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재차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요한(John Mark)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엇갈린 것입니다. 마가요한은 제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 지방의(Pamphylia Province) 버가(Berga)에서 그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더 이상 이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구브로(Cyprus)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가요한이 제1차 선교여행에 합류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가요한은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바나바의 지도를 따라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Silas)를 택했습니다. 안디옥교회(Antioch Church)는 이들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 수리아(Syria)와 길리기아(Cilicia)로 다녔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달려가는 선교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말씀을 묵상합니다.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And after some days, Paul said to Barnabas, “Let us return and visit the brothers in every city where we proclaimed the word of the Lord, and see how they are.”

얼마 지난 후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과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그 제안을 바나바도 수락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제1차 선교여행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구브로 섬(Cypus Island)에서 마가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동행했고, 총독(proconsul)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에게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Elymas the magician)가 그를 대적했으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버가(Berga)에서 마가요한이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Bisidia)에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고니온(Iconium)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방인들, 유대인들, 관리들)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루스드라(Lystra)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돌로 쳤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을 터이니, 그들의 미움은 이전보다 오히려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들 도시들과 교회로 가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쉼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보다도 주님의 선교명령이 더 컸습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큰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2차 선교여행에 동의했습니다.

2013년에 콜롬비아(Colombia) 선교 갈 때였습니다. 프레즈노교회 박광래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분은 그 전 해 2012년에 아프리카도 동행했습니다. 콜롬비아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박 목사님이,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했습니다. 2002년에 콜롬비아 선교를 시작하여 2013년에는 이미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고 목회사정을 듣고, 약간씩 지원도 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콜롬비아와 중국, 아프리카 등지의 교회들이 떠오릅니다. 뜨겁게 성장하고 있을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Now Barnabas wanted to take with them John called Mark.

좋은 동기였습니다. 어려웠던 경험도 있었지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2차 선교여행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제1차 때 그 자리들을 방문하고, 교회들과 성도들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가 마가요한을 챙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골로새서 4:10). 그리고 바나바는 젊은이가 한번 실수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어 동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깨달아 알았습니다.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But Paul thought best not to take with them one who had withdrawn from them in Pamphylia and had not gone with them to the work.

그러나 바울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Pamphylia) 지방에서 자기들을 떠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자를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 떠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초점을 둔 것은 선교팀의 신뢰성(reliability of the mission team)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내부 분열과 결집력에 있어 확신의 결여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 길에 강력한 팀워크(teamwork)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선교팀 구성과 사역 자체가 “이미” 선교사역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팀을 꾸리고 내부결속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자체가 선교입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확실한 길입니다.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And there arose a sharp disagreement, so that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Barnabas took Mark with him and sailed away to Cyprus.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구브로(Cyprus) 섬으로 갔습니다. 이후 그들의 행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 “선교활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을까요? 서로 선교사역에서 동역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가요한과 동역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마가요한을 부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for he is very useful to me for ministry.
디모데후서 2 Timothy 4:11b

이로 미루어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로서 화해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역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마가는 베드로(Peter)와 동역하여 로마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일로 바울과 베드로가 서먹한 관계였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Galatians) 2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요한마가가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사역하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한마가는 결과적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But Paul chose Silas and departed, having been commanded by the brothers to the grace of
the Lord.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후에 실라를 택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파송했습니다.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And he went through Syria and Cilicia, strengthening the churches.

수리아(Syria)는 시리아 지방(Syria Province)입니다. 길리기아(Cilicia)는 바울의 고향
다소(Tarsus)가 있는 지방으로, 시리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Galatia Province) 사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도시들, 곧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Pisidia),
이고니온(Iconium), 루스드라(Lystra), 그리고 더베(Derbe)가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가되, 제1차 때와 달리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여,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지방을 통과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것과 마가요한의 일탈 등 두
가지 부정적인 경험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라(Silas)를 대신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공의회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공의회 후에 실라는 유다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시리아 안디옥교회에 잠시 파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공의회가 작성한 편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로써 안디옥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실라(Silas)는 유다(Judah)와 함께 잠시 예루살렘교회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갈라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들이 함께였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견고합니다.
바울서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대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지역교회와 선교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위한 봉사가 주된 목적입니다. 마치 “섬” (island)처럼 떠 있으면서, 주변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또한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각지에 지역교회를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선교교회에는 특수선교를 포함합니다. 군대, 병원, 교도소, 양로원 등이 예입니다.

금문교회(Golden Gate Pres Church)는 분명히 지역교회(local church)입니다. 그러나 선교교육을 특별한 사명으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문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멤버들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주민들입니다.

금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물질로 선교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선교교육” 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도 함께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금문교회는 해외선교(world mission)만 아니라 국내선교(domestic mission)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후파선교(Hoopa mission)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역 타인종에게 교회당을 개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선교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에게서 배우고, 초대교회의 사역을 따라서 사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지역교회인 시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사역하며 목회하다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제1차 선교여행과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신들” 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목회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목회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모델은 성경의 교회,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중에 예루살렘교회와 시리아 안디옥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지역교회이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입니다. 이들이 제1차 선교여행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공의회에 함께 참여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한 화합과 위로의 일치를 끌어내는 일에 주님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길로 복음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요한과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전파가 인간의 일이라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그들은 각각 나아갔습니다. 복음전도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목

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들은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세계 곳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로마서 Romans 8:28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가 부르심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사, 복음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옵시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은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